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4. Vol. 87 No. 2 pp. 201~236

여성새로일하기정책 네트워크 구조 내 정부행위자의 비중과 정책성과 간 관계 분석

이재무

여성새로일하기정책 네트워크 구조 내 정부행위자의 비중과 정책성과 간 관계 분석

이재무*

초 록

본 연구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의 주무 행위자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유의한 계량적 자료를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각 요인별 특성치를 산출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 실효적인 사회연결망분석 방법과 분석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축출한 후 요인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세를 비교해 연관 여부를 판단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밀도가 높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정행위자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대상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관련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부각될 정도의 활발한 활동을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위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위자들을 중개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추세를 비교하여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 내 기능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과 매개역할 수행이 성과 창출에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 여성새로일하기정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정책네트워크, 사회연결망분석

I. 서론

유용한 천연자원이 부재하고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지도 못한 한국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현재와 같은 국가경쟁력을 확보

*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빙교수(lim-policy@hanmail.net)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의 개발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인력과 사회적 자본을 효과적인 기제로 재생산하여 지식의 창출과 확산, 안정적인 시장 투입 등을 도모하는 포괄적 활동(박숙자, 2007: 3)을 의미하는 인적자원개발은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편향되고 불합리한 양상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남녀불평등의 노동구조는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 부족,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족 내 책임분담 저조, 차별적 조직문화와 같은 여성인력에 불리한 현상의 만연 등 다발적 변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변화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김태홍 외, 2009: 3). 그러나 막대한 양의 정보 교류, 다방면의 환경 및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를 특성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자본과 시설 등 유형자산보다 인간에게 체화된 지식·정보·창의적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고, 인재를 통해 창출된 차별적 가치만이 국제적 경쟁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등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면(오현석 외, 2011: 248),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 범주와 여력이 남아있는 한국 여성인력의 개발은 국가의 혁신적 생산성 증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미래 전략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실적 가치에 기초하여 여성인력 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시도는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여성인력개발 지원 강화, 선진화 지향의 선결 중점과제 선정 등 지속적으로 영위된 전향적 행보들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였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정책으로 간주되어 추진되기에 이른다(김종숙 외, 2008: 3). 특히 여성인력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인 일자리를 여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겠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가사 양립을 지원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기획과 집행은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공공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집중적·하향식으로 대량 창출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 한계를 보이고 실효성이 낮아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춰 스스

로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다품종소량생산 하기 위해 최근의 정책집행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 혹은 형식적이더라도 네트워크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김원중, 2008: 3; 최영출, 2011: 63). 더불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이 제반 일자리창출 정책들처럼 연계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망(network) 체제를 추진 구조로 공식 표명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09: 48-49), 정책 초기 중앙정부가 정책의 기초 토양 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주도하였지만 정책의 진전에 따라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의 전면에서 대폭 강화된 책임성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민간부문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사실(남병탁, 2012: 157)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이 정책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문제나 쟁점이 충분히 인지되는 예측 가능한(predictable) 수준에서 형성, 집행되기 때문에(Smith, 1993: 66; 류지성, 2009: 433 재인용),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성과를 중간 평가할 수 있고, 집행활동에 대한 조정과 수정으로 사회적 자본 손실과 기회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이한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집행과 성과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네트워크 연구가 비계량적이고 기술적(descriptive) 분석방법을 채택해 이루어져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제약을 보였다는 점(이인원, 2013: 34)을 감안하여 네트워크의 성찰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네트워크를 계량적으로 분석해주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선용하여 지나치게 정성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정책네트워크 연구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목적 달성을 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향후 네트워크 구조가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창출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정책집행과 성과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1. 여성새로일하기 정책 및 정책네트워크의 이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기인한 노동인력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여러 요인에 따른 미취업 여성인력에 대한 경제활동참여 지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되었다. 2008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무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의 보조를 받아 출산과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 사업이다. 주무 활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된 2014년 8월 기준 126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맡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광역새일지원본부가 동일한 활동을 전담한다. 세부 활동은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 취업의욕을 상실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의 직업경력·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장기간 직장을 이탈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제, 새로일하기센터 구직 등록여성·취업자 및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의 인력에 대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과 취업강화·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취업설계사가 여성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인·구직정보 등을 수집하는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99-104).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이들 세부 활동을 통해 얻은 새일여성 인턴 연계 인원, 인턴종료 후 취업 인원, 직업교육훈련 수료 인원,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 인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 건수, 자녀양육부담완화 인원 등을 정책성과로써 여성정책연차보고서에 공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도 이들 실적을 고려하여 일자리과제 부문

에 대한 정책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 37).

전술한 것처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집행되고 있다. 2013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의 지침 내용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기획과 총괄관리를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실천적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3: 8-9).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 운용하면서 구인구직 여성만남의 날이나 지역 인적자원관리 담당자 협의회 등과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티-멘토링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코칭, 개인 진로 설계 컨설팅, 직장적응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기타 단체들과 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한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3: 8-9; 62).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기업과 단체들까지 행위자로서 정책에 참여하여 서로 연계하고 의존적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 행위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조 성분이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문제나 정책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독립적 행위자들 사이의 비교적 안정적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Kickert etc., 1997: 6; 김순양, 2010: 179), 자원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클러스터 또는 복합체의 구조적 결합이다(Benson, 1982: 148). 매우 많은 개념 정의만큼 관점도 다양하여 이상적인 지배구조로써 정부의 특정한 형태로 인식하기도 하며, 비공식적 관계의 수평구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간주하기도 한다(Luzi etc., 2008: 240; Löblich & Pfaff-Rüdiger, 2011: 633). 또한 정책 환경이 사회·경제적 요인 중심으로 재편되고(Anderson, 2011: 46), 정책중심(policy), 생산력(productivity), 시장화(marketization), 분권화(decentraliz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서비스지향(service orientation) 등 거버넌스적 동인에 의한 변혁(Kettl, 2005: 1-2)의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요구되는 민주적·집단적 메커니즘이자 참여(participation)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가 근본이 되는 국정운영 개혁 수단이다(Peters, 1996: 47).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중시적 수준(meso level)에서 정

부와 비정부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Mills & Seward, 1994: 88), 비공식적·분권적·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형성 과정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Kenis and Schneider, 1991: 40). 또한 정부와 비정부 부문 중 어느 행위자가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권력 및 이해관계 등 관계유형이 상이해지고 특성 역시 달라지며(김지희·안문석, 2002: 108),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의존적 관계와 다분한 행위자들의 관계에 근간하기 때문에 갖는 다채로운 구조 양상, 안정적인 이익중개 구조, 유기적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 등을 특성으로 갖는다(김옥일, 2008: 13-14; 김채규, 2010: 21; 방민석, 2002: 32; 송희준·송미원, 2002: 363; 유병권, 2009: 14).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역시 일관되게 합의된 것은 없다. 통상 정책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로 네트워크의 성격을 결정하고, 참여할 때의 개방 혹은 폐쇄의 정도에 따라 정책반응이 달라지는 정책행위자(김주환, 2004: 137), 건의나 청원 등 정보의 흐름으로 확인되는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 사이의 거래 내용과 위원회나 간담회, 세미나 등 행위자들 사이의 다망변의 연계행위로 확인되는 양태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상호작용(배응환, 2001: 23; 김정주, 2001: 42-43),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개인적 이해가 아닌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유형을 의미하는 관계구조(김순양, 2003: 195-196; 김예승·홍성우, 2010: 32)를 주요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주환(2004)이나 박용성(2004)과 같이 응집성과 같은 요인을 연구목적에 맞춰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네트워크는 다각적인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유형화되었는데, Atkinson & Coleman(1989)은 관료제의 집권성(concentration), 국가자율성(autonomy), 업계 이익 통합 수준 등을 준거로 국가지시체제, 다원주의체제, 공동보조체제 등으로 세분화였다. 또한 R. A. Rhodes(1988)는 자원의 의존적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형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견고한 구조의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와 느슨한 구조의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가 자리 잡고 사이에 전문화된 네트워크(professional network), 정부 간 네트워크(intergovernmental network), 영토네트워크(territorial network) 생산자네트워크(producer network)가 위치한

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Marsh(1992)와의 공동 연구에서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유형으로만 정책네트워크 유형을 수정, 구분하였다. Lindquist(1992)는 정부와 이익집단의 분석능력, 권력 자원에 따라 생성되는 그들 간의 조직화 수준에 따라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 국가 지시적, 협조, 조합주의 등 5개 유형으로 정책네트워크를 구분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책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논제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 김용민(2010)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기관들의 제공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사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여성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정보 접근성 강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제고 방안을 기술하였다. 김혁주(2011) 역시 김용민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장하였다. 노경란·최운선(2013)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인해 나타난 취업설계사라는 신생 직업의 책무와 과업을 규명하고, 그들의 인식에 기초한 직무특성을 규명하여 취업설계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무숙 외(2010)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집단의 재취업률과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정책효과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사업수행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의 활동 결과 창출된 정책성과, 크게 두 가지이다. 즉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성분을 파악하고 구조적 특성이 같은 기간의 정책성과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분석대상이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기 거론한 것처

럼,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가시적 수치와 도식으로 설명한다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채택, 활용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개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구조를 관찰하고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들의 사회적 행위와 연계 상태 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Mitchell, 1969: 2; 김용학, 2011: 5 재인용). 정책행위자의 미시적 행동과 거시적 사회구조 변화를 연계하여 시각적으로 유용한 사회현상 설명력을 갖는다는 장점 때문에 각종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자주 활용되며(김경모, 2005: 174; 최연철, 2012: 177 재인용), 분석대상의 자료 성격에 따라 완전연결망, 자아중심연결망, 준연결망 분석으로 분류된다(김용학, 1995: 34-37). 또한 연결망 내 직접적 관계와 결속에 초점을 두는 관계적 접근방법(relational approach)과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위치와 효과를 측정하는 위치적 접근방법(positional approach) 등의 접근방법에 따라 밀도, 포괄성, 연결강도 및 지속기간, 연결정도·사이·인접·위세 중앙성, 구조적 공백, 구조적·형태·역할 등위성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김용학, 2011: 29-33; 63-85). 이들 중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와 중앙성(centrality), 집중화수준(centralization) 측정치가 관계구조의 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첫째, 밀도는 네트워크의 결속을 의미하며 행위자들끼리 접촉수준으로 완전 무관함을 뜻하는 0에서 완전 연계를 뜻하는 1사이의 수치를 밀도 지수(avg value)로써 갖는다. 커질수록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끼리 접촉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접촉빈도가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공간 거리가 짧음을 뜻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규모는 그만큼 작다고 볼 수 있다(김용학, 2011: 63-64; 안이환, 2007: 102). 밀도 지수가 네트워크 규모와는 반비례하고, 행위자들 간 접촉빈도와는 비례함을 감안하고, 통상 사회나 정부 네트워크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비해 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였을 때 밀도에 대한 해석은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성은 연결망 내 행위자 중 권력과 영향력 개념과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참여자를 찾는 분석지표이다. 중앙성은 분석의 취지와 필요에 따라 세분된 중앙성을 확인하는데, 여러 중앙성들 중에서 본 연구는 연결정도중앙성(degree centrality)과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사이중

양성(betweenness centrality)을 파악하였다. 연결정도중앙성은 도출하기 가장 쉬운 지표이자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중앙에 위치하는지 계량화한 지수이며, 인접중앙성은 다른 행위자에게 도달하려면 필요한 최소 경로거리의 총합이다. 사이중앙성은 다른 행위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특정 행위자의 중재적 위치 수준을 계량화한 지수이다(구태화·이윤철, 2008: 146-150; 김용학, 2011: 65-70). 이들을 파악하는 이유는, 연결정도중앙성이 높은 경우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에 정보 취득 확률이 높고 권력이 크거나 커질 수 있으며, 인접중앙성은 행위자가 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나 중앙부에 위치하여 높은 위상을 갖는지 알 수 있고, 사이중앙성이 높은 경우 다른 행위자들이 다분하게 의존하고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화·장로사, 2010: 74). 따라서 이들 중앙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 사이의 지위와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집중화수준은 특정 네트워크가 보이는 중앙 집중적 구조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연결망이 특정 행위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결속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김용학, 2011: 83).

본 연구는 합리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과정을 설계하였다. 첫째, 자료의 수집은 먼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와 각종 보도 자료, 유무선 통화 등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각 연도별로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된 공식 활동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공식 활동은 네트워크 내 중요한 연계행위로서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성격을 규정(이재무, 2014: 218)하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 관련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비롯하여,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관한 후원, 협약체결, 제반 활동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렇게 수집된 공식 활동 내용에서 정책과 관련하여 행위자로 참여한 모든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 행위자들을 검색하여, 본 연구와 같은 정책네트워크의 연구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연결망분석의 세부 방법 중 하나인 준연결망(quasi-network) 방식을 활용해(김용학, 2011: 24), 각 행위자들의 관계구조를 확인하고 각

부문별 연계상태를 파악하였다. 이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정책성과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성으로 공식 공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도 정책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직업 및 집단 상담, 새일여성인턴 연계, 인턴종료 후 취업, 직업교육훈련 수료, 직업교육 훈련 수료 후 취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 자녀양육부담 완화 등과 관련된 인원수·비중 등에 대한 공식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사회연결망분석의 실행과 결과의 도식화는 'UCINET6'과 'NetDraw'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네트워크의 관계구조 해석을 위해 우선 상호접촉과 집단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는 필수적 검토요인으로써 산출된 밀도 지수를 통해 밀도를 확인하였다. 밀도를 확인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끼리의 접촉수준과 네트워크의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주요 행위자들의 중앙성을 확인하였다. 연결정도중앙성이 높을수록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이 많은 행위자를 의미한다. 연결된 행위자들의 규모에 따라 연도별 측정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연결정보보다 각 해의 네트워크 상 표준화연결정도지수(NrmDegree)를 판단변수로 선택하였다. 인접중앙성은 연결망 내에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며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며 더 큰 기능을 담당하는 행위자가 된다.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지표인 거리(farness)를 채택하지 않고 표준화인접성지수(nCloseness)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이중앙성은 연결망 내 행위자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당연히 높을수록 중개자로서 다분하게 활동하는 행위자가 되며, 앞의 두 중앙성과 같이 판단을 위해 표준화매개지수(nBetweenness)를 선택하였다. 끝으로 집중화수준은 핵심행위자 중심으로 집중된 형태인지 분산된 형태인지 확인해주는 지표이다. 요컨대 집중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활발한 활동을 행하는 행위자, 위상이 높은 행위자, 중개자 역할을 많이 하는 행위자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집중화수준은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때 성분검토를 통한 분석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두 기관을 중심으로 행하였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법적, 실질적

모든 측면에서 가장 분명한 핵심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설립되어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여성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광역지역본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적 특성은 동일하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개의 정책행위자로 처리하였다.

셋째, 주요 행위자의 비중은 사회연결망분석으로 도출된 각 지표별 수치로 가늠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정책성과가 공개된 2012년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네트워크의 성분과 정책성과를 상호 비교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통해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인 변수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되어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는 어떠한가?

1-1.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주무 행위자의 중앙성 지수는 어떠한가?

1-2.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집중화수준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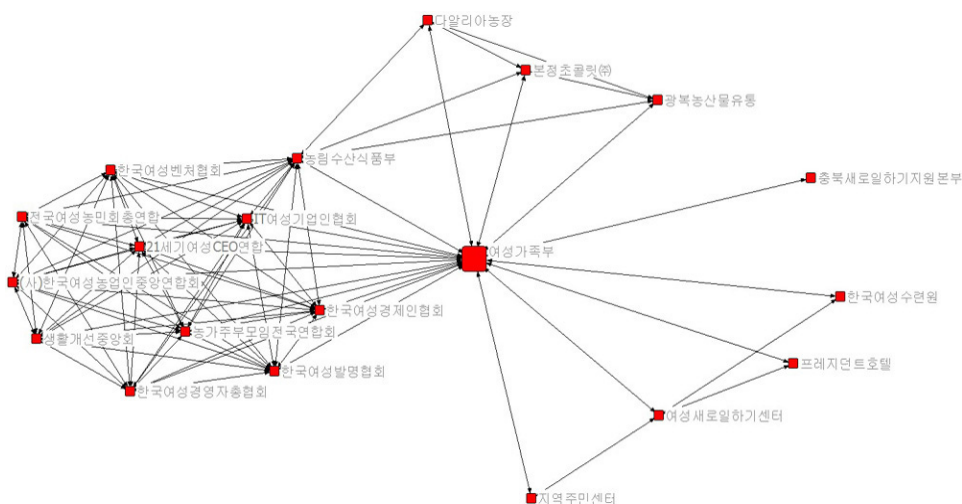
1-3.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밀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정책집행 성과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결과

1.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

2009년의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2]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네트워크 밀도는 51.1%로 네트워크가 상당한 수준의 밀도를 가진 연결망임을 알 수 있었다.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연결정도와 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 여성가족부(32회, 15.3%), 농림수산식품부(17회, 8.1%), 여성새로일하기센터(14회, 6.7%),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13회, 6.2%),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생활개선중앙회·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21세기여성CEO 연합(이상 11회, 5.3%), 광복농산물유통·본정초콜릿(주)·다알리아농장(이상 4회, 1.9%), 지역주민센터·한국여성수련원·프레지던트호텔(이상 2회, 1.0%), 충북새로일하기지원본부(1회, 0.5%)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11.2%이었다. 인접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거리와 표준화인접성지수는 여성가족부(19회, 100%), 농림수산식품부(24회, 79.2%), 한국여성경제인협회·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IT여성기업인협회·(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생활개선중앙회·21세기여성CEO 연합(이상 27회, 70.4%),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복농산물유통·본정초콜릿(주)·다알리아농장(이상 34회, 55.9%), 한국여성수련원·지역주민센터·프레지던트호텔(이상 36회,

52.8%), 충북새로일하기지원본부(37회, 51.4%)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74.0%이었다. 사이중양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매개정도와 표준화매개지수는 여성가족부(90.5회, 52.9%), 농림수산식품부(15회, 8.8%),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회, 0.8%), 나머지 행위자는 매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52.4%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무 행위자로 선정한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각 중양성과 집중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09년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구조성분치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양성	표준화연결정도지수	15.3%	6.7%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55.9%
	표준화매개지수	52.9%	0.8%
집중화 수준	연결정도집중화수준	11.2%	
	인접성집중화수준	74.0%	
	사이집중화수준	52.4%	
	밀도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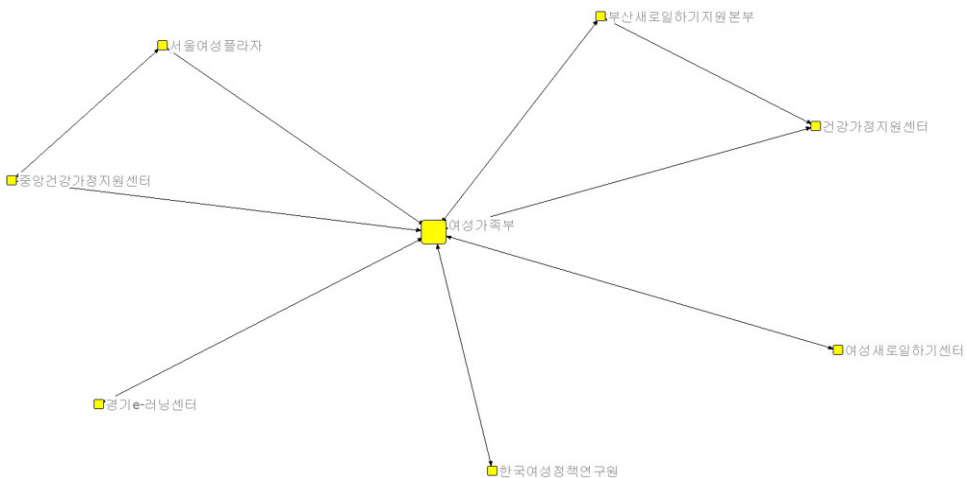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009년 정책네트워크의 밀도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한 연결 중 절반이 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치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한 상기 기술한 것처럼 밀도 지수를 네트워크 규모, 접촉빈도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 행위자들 간의 전체 접촉빈도가 194회로 다른 해에 비해 가장 많은 정도를 보인 2009년의 네트워크는 높은 밀도의 원인을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아닌 행위자들 간의 다분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연결정도중양성은 특정 행위자의 네트워크 내 활동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32회, 15.3%)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위한 정보의 취득이나 권력 행사 등에서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14회, 6.7%)는 상대

적으로 역할수행의 정도가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1.2%의 연결 정도집중화수준은, 집중화수준이 25.0% 이내인 경우 행위자들 간 중심성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행연구 결과(Waseman & Faust, 2006: 182)에 비춰보았을 때 활동이 다분한 정책행위자 중심적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접중앙성은 해당 정책행위자의 위상을 말해 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19회, 100%)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34회, 55.9%)의 인접중앙성지수에 미루어 판단하면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한 반면에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은 아직 견고하게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접성집중화수준은 74.0%로 연결정도집중화수준과 달리 여성가족부라는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중앙부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았다. 사이중앙성은 특정 행위자의 리더이자 중개자로서 역할 수행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앞서 여타 중앙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90.5회, 52.9%)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회, 0.8%)의 사이중앙성지수를 감안했을 때 여성가족부만이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집중화수준 역시 52.4%으로 네트워크 내 중개 활동이 여성가족부에 상당히 독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각 행위자들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활발했으며,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활동수준이나 위상,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수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어서 여성가족부가 네트워크 내 거의 대부분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주무부처의 권한과 활동이 집중되고, 새롭게 도입된 일선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2010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분석 결과

2010년의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3] 2010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네트워크 밀도는 32.1%로 네트워크의 밀도 자체는 낮지 않은 수준의 밀도를 가진 연결망이다.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연결정도와 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 여성가족부(7회, 10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새로일하기지원본부·서울여성플라자(이상 2회, 28.6%),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기e-리닝센터(이상 1회, 14.3%)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77.6%이었다. 인접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거리와 표준화인접성지수는 여성가족부(7회, 10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새로일하기지원본부·서울여성플라자(이상 12회, 58.3%),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한국여성정책연구원·경기e-리닝센터(이상 13회, 53.8%)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94.4%이었다. 사이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매개정도와 표준화매개지수는 여성가족부(19회 90.5%), 나머지 행위자는 매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90.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무 행위자로 선정한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각 중앙성과 집중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2009년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구조성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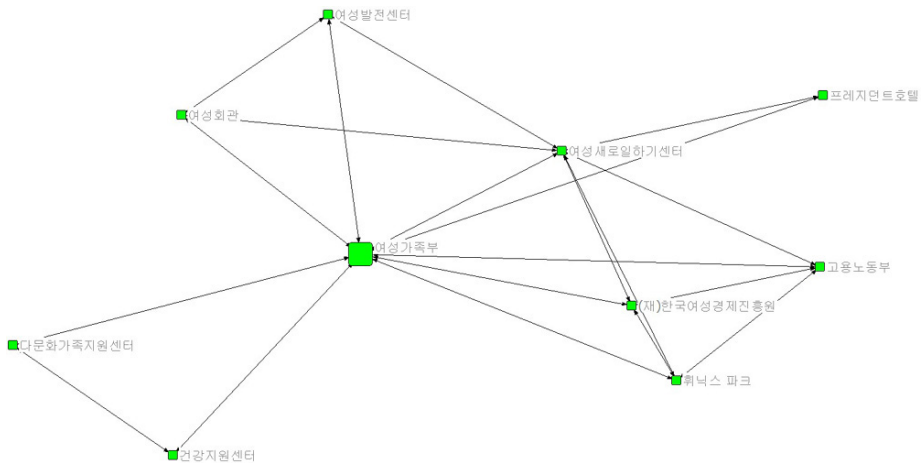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앙성	표준화연결정도지수	100%	14.3%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53.8%
	표준화매개지수	90.5%	0%
집중화 수준	연결정도집중화수준	77.6%	
	인접성집중화수준	94.4%	
	사이집중화수준	90.5%	
밀도		32.1%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 정책네트워크의 밀도는 30%가 넘기 때문에 밀도의 수준 자체는 치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들 간의 전체 접촉빈도가 18회로 다른 해에 비해 가장 적은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결정도중앙성지수를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7회, 100%)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정책을 위한 정보의 취득이나 권력 행사 등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1회, 14.3%)는 역할수행의 부족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77.6%의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네트워크 규모가 작고 행위자들의 활동이 빈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접중앙성지수를 보면,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즉 여성가족부(7회, 1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13회, 53.8%)로 2009년에 비해 위상의 확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인접성집중화수준 역시 94.4%로 여성가족부의 구심적 역할 정도가 독보적이었다. 사이중앙성지수를 보면, 여타 중앙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19회, 90.5%)만이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집중화수준 역시 90.5%으로 2009년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내 중개 활동이 여성가족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2010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소규모의 양상을 보였으며, 각 행위자들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활동수준이나 위상,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은 여전히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수행은 2009년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2010년 자체의 수준도 미약한 편이어서 여성가족부가 네트워크 내 거의 모든 기능의 수행을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유럽재정위기 등과 맞물려 고용환경의 사정이 크게 좋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실업자 수는 92만 명, 실업률은 3.7%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2009년보다 더욱 실업상황이 악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11: 8). 즉 국내외 전체적인 고용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해서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소정의 조건에 따라 여성회관이나 여성교육훈련 기관을 전환하여 마련되었는데, 2009년까지는 양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확충에 집중했고, 본격적으로 기능하고 질적 관리를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로 볼 수 있다. 이는 2009년에 확충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2개소였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5개소만 확충되었으며, 정책에 맞게 특화된 새로일하기프로그램이 2010년부터 개발, 보급되기 시작한 사실 등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오류개선 등으로 인해 활동성과 창출이나 위상 확립에 저해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

2011년의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4]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네트워크 밀도는 55.6%로 2009년에 비해 네트워크의 밀도가 다시 높아졌다.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연결정도와 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 여성가족부(14회, 25.9%), 여성새로일하기센터(12회, 22.2%), 고용노동부·(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휘닉스파크(이상 4회, 7.4%),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이상 3회, 5.6%), 프레지던트호텔·건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상 2회, 3.7%)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18.5%이었다. 인접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거리와 표준화인접성지수는 여성가족부(7회, 1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11회, 81.8%), 고용노동부·(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휘닉스파크(이상 14회, 64.3%),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이상 15회, 60.0%), 프레지던트호텔·건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상 16회, 56.3%)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79.5%이었다. 사이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매개정도와 표준화매개지수는 여성가족부(19.5회 54.2%), 여성새로일하기센터(5.5회 15.3%), 나머

지 행위자는 매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52.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무 행위자로 선정한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각 중앙성과 집중도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표 3〉 2011년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구조성분치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앙성	표준화연결정도지수	25.9%	22.2%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81.8%
	표준화매개지수	54.2%	15.3%
집중화 수준	연결정도집중화수준		18.5%
	인접성집중화수준		79.5%
	사이집중화수준		52.5%
	밀도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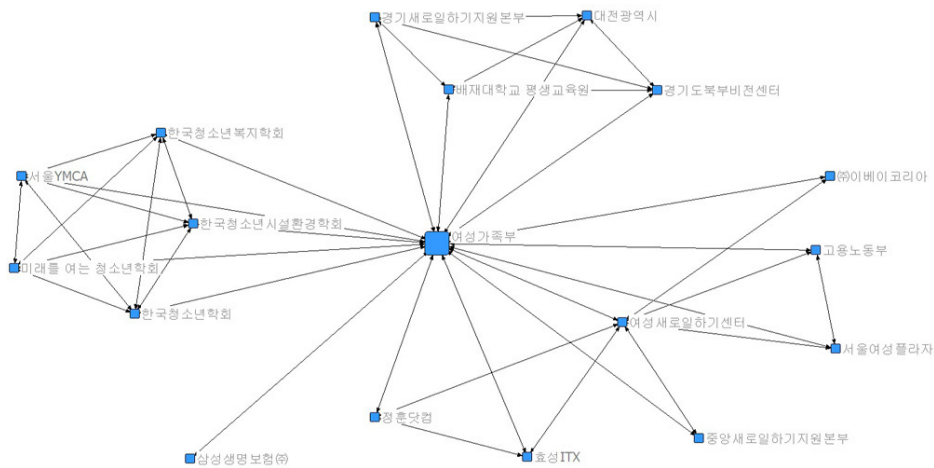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011년 정책네트워크의 밀도는 55.6%로 다시 50%를 넘겨 높은 밀도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행위자들 간의 전체 접촉 빈도가 50회로 2009년에 비해 급증한 것을 보면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2009년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고 소시오그램을 보면 아직 네트워크가 2009년의 규모를 회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조 성분은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연결정도중앙성지수를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14회, 25.9%)가 2009년, 2010년과 같이 활동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2회, 22.2%)가 일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집중되어 있던 연결정도집중화수준도 18.5%로 크게 낮아져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여성가족부만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접중앙성지수를 보면,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11회, 81.8%)는 여성가족부(7회, 100%)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중앙부에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접성집중화수준 역시 79.5%로 여성가족부의 중심적 역할 정도가 적지 않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이중앙성지수를 보면, 2009년과 2010년 리더의 역할을 독점했던 여성가족부(19.5회, 54.2%)가 그 역할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5.5회, 15.3%)와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중개자 역할은 여성가족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이집중화수준도 52.5%으로 여성가족부의 독점적 기능 수행이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아직 규모가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2010년에 비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수준이 나아졌고, 2009년, 2010년과 명확히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준화매개지수를 제외하고 전 지표 차원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의 활동 실적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인 수치로 볼 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중개자 역할도 과년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었다. 즉 2009년, 2010년에 비해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활동수준이나 위상,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측면의 독점은 많이 낮아진 반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경주하는 양태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09년 준비, 2010년 본격적 실행에 따라 다양한 시행 상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2011년 다분한 성과로 나타난 인과적 결과로 볼 수 있다.

4.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분석결과

2012년의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5]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산출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네트워크 밀도는 29.4%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연결정도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연결정도와 표준화연결정도지수는 여성가족부(21회, 24.7%), 여성새로일하기센터(11회, 12.9%),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서울YMCA(이상 5회, 5.9%), 배재대학교평생교육원·경기도북부비전센터·대전광역시·경기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상 4회, 4.7%), 서울여성플라자·고용노동부·효성ITX·정훈닷컴(이상 3회, 3.5%), 중앙새로일하기지원본부·(주)이베이코리아(이상 2회, 2.4%), 삼성생명보험(주)(1회, 1.2%)순이었으며, 연결정도집중화수준은 19.9%이었다. 인접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거리와 표준화인접성지수는 여성가족부(17회, 1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27회, 63.0%),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서울YMCA(이상 29회, 58.6%), 배재대학교평생교육원·경기도북부비전센터·대

전광역시·경기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상 30회, 56.7%), 서울여성플라자·고용노동부·효성ITX·정훈닷컴(이상 31회, 54.8%), 중앙새로일하기지원본부·(주)이베이코리아(이상 32회, 53.1%), 삼성생명보험(주)(33회, 51.5%)순이었으며, 인접성집중화수준은 89.8%이었다. 사이중앙성의 경우, 행위자들의 매개 정도와 표준화매개지수는 여성가족부(105.5회, 77.6%), 여성새로일하기센터(6.5회 4.8%), 나머지 행위자는 매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집중화수준은 77.3%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무 행위자로 선정한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각 중앙성과 집중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2012년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네트워크 구조성분치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앙성	표준화연결정도지수	24.7%	12.9%
	표준화인접성지수	100%	63.0%
	표준화매개지수	77.6%	4.8%
집중화 수준	연결정도집중화수준	19.9%	
	인접성집중화수준	89.8%	
	사이집중화수준	77.3%	
	밀도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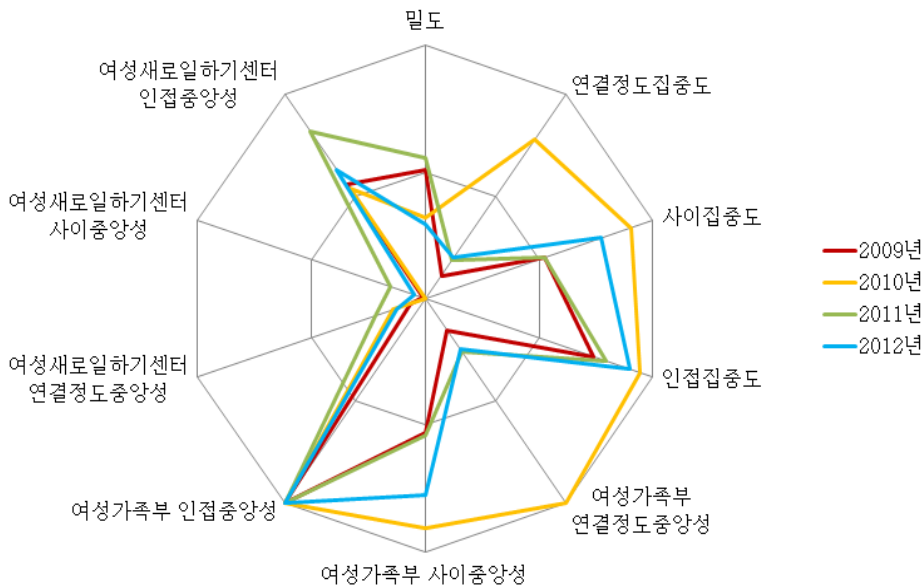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012년 정책네트워크의 밀도는 29.4%로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행위자들 간의 전체 접촉빈도가 90회로 늘어나고, 소시오그램처럼 네트워크 역시 일정 수준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조 성분은 2011년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연결정도중앙성지수를 보면, 2011년처럼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21회, 24.7%)가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을 영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11회, 12.9%)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2011년에 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동 수준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4년 동안의 정책영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활동 역시 다각화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결과는 아니다. 2011년의 양상이 이어지면서 연결정도집중화수준도 19.9%로써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특정 행위자가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접중앙성지수를 보면, 인접중앙성의 양상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여성가족부(17회, 100%)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27회, 63.0%)가 정책네트워크 중앙부에 위치하며 높은 위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인접성집중화수준은 89.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성과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이중앙성지수를 보면, 다른 중앙성과 비교해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2011년에 비해 여성가족부(105.5회, 77.6%)의 리더로서의 역할 비중이 더욱 커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6.5회 4.8%)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책의 중개자 역할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결과이다. 사이집중화수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77.3%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2011년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수준 또한 나아졌다. 2011년의 양상을 계승하고 있어 연결정도중앙성 와 인접중앙성 차원에서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와 일선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각각 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었으며, 활동수준이나 위상,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중앙성과 관련된 지수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독점적 기능이 부각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리더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높은 밀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네트워크가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주무부처로서 꾸준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

하기센터는 정책의 영위에 있어 네트워크 중심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도모하고 있고 그 위상 또한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지만 수준이 아직 크지 않고 중개자로서 기능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역할수행의 수준이 좋아지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6] 2009~2012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성분 변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의 주무 행위자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성분 분석결과를 정책성과를 함께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의 내용을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이중양성과 인접중양성이 새일여성인턴 연계 인원과 인턴 종료 후 취업 인원의 4년 동안의 양상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구조성분과 정책성과의 변화 추세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 요소는 없었다. 정책네트워크 구조 성분과 정책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한 지표들의 신뢰도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사용하여 검정한 결과 각각 .675, .627, 적

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정책네트워크 상 구조 성분과 정책성과 사이의 추세변화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2011년, 2012년, 2009년, 2010년 순으로 수준이 크고,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소폭 하락 2011년 크게 증가한 후 2012년 다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 상 중핵적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정책네트워크 내 여성가족부의 역할 비중이 가장 컸던 2010년에는 오히려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성과가 4년간 성과치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성과 추이에 비견했을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여성가족부 활동에 대한 신중한 점검과 제고가 필요하다. 이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이중앙성, 인접중앙성 두 개의 구조성분이 새일여성 인턴연계 인원, 인턴 종료 후 취업 인원 두 개의 성과와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형세의 동일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 여부와 정책집행에 있어 리더적 중개 기능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새일여성 인턴에 연계되는 인원과 인턴을 마친 후 취업하는 인원의 증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 성과 증대를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강화에 대한 별도의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서 반복되어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표준화매개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책분야의 리더로서 행위자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 수행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여성가족부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성분 분석결과와 정책성과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네트워크 구조 성분	밀도	51.1%	32.1%	55.6%	29.4%
	연결정도집중도	11.2%	77.6%	18.5%	19.9%
	사이집중도	52.4%	90.5%	52.5%	77.3%
	인접집중도	74.0%	94.4%	79.5%	89.8%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여성 가족부	표준화연결정도지수	15.3%	100.0%	25.9%	24.7%
		표준화매개지수	52.9%	90.5%	54.2%	77.5%
		표준화인접성지수	100.0%	100.0%	100.0%	100.0%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표준화연결정도지수	6.7%	14.3%	22.2%	12.9%
		표준화매개지수	0.9%	0.0%	15.3%	4.8%
		표준화인접성지수	55.9%	53.8%	81.8%	63.0%
정책 성과	새일여성 인턴연계 인원		111.0%	107.1%	129.2%	127.7%
	인턴종료 후 취업 인원		92.0%	91.7%	96.4%	95.2%
	직업교육훈련 수료 인원		94.4%	91.9%	92.7%	92.0%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 인원		54.0%	54.5%	59.4%	61.1%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 건수		670	3,588	4,321	6,179
	자녀양육부담완화 인원		10,282	16,751	15,312	10,099

IV.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논의

본 연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의 정책네트워크를 고찰하여,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조성분을 포함한 정책네트워크의 세부 구조 성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구조성분이 여성새로일하기정책을 통해 산출된 정책성과의 추이와 유사성을 보이는지 성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을 가시적인 수치로 산출하기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계량적 연구방법으로 실효성을 인정받은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해년도의 구조적 요소의 변화 추이를 제고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활동수준과 위상,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이 다분했던 반면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 수행은 미미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수준이나 연계망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모든 활동이나 부담이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나 연계망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전년에 비해 나아졌고, 일선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활동수준과 위상이 비약적으로 커져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연계망의 규모와 상호작용의 수준이 보다 개선되었으며, 전년에 이어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도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중개자 역할이 다소 감소하여 여성가족부의 역할 수행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성과의 추세를 정책네트워크 구조와 주요 행위자의 구조적 성분과 비교한 결과 여성가족부의 활발한 활동 수준과 정책성과 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추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표준화매개지수와 표준화인접성지수가 새일여성 인턴 연계 인원, 인턴종료 후 취업 인원 두 가지 성과와 4년 동안 동일한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 한정하여 행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건데 현재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특성을 보인다고 규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라는 중앙정부 행위자가 연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핵심적 기능을 전담하고 있어 관료의 역할이 크고 정책의 수혜자가 여성이라는 한정적 주체들에 제한되어 네트워크 참여자 수준이 협소하기 때문이다(Rhodes & Marsh, 1992: 251). 정책공동체의 속성을 보이는 현재의 여성새로일하기 정책네트워크는 향후 경직성과 배타성을 배격하고 참여가 자유로워 행위자들 간에 큰 중복성을 특성으로 하는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김덕근, 2006: 82-83)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우열적 관계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수준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참여자가 정책에 참여하고 확대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슈네트워크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공동체 내의 권력분포를 대칭적이고 역동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

반을 마련해야 하며(최홍석·홍성만, 2004: 76),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이면서 융통성 있게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정책을 보조하는 고용노동부까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범주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역운동가와 전문가, 대학 등 보다 확대된 정책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협동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칭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핵심 기구들에 대한 활동과 역할 측면의 전략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그러한 활동 수준이 새일여성 인턴연계나 인턴 종료 후 취업 부문의 인원 증감과 상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활동이 성과지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양적 증가에만 치중한 결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치중해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광역여성일하기지원본부의 확충과 같은 양적 측면의 활동 영위를 차치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지방정부와 일선기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같은 고용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다량 생산, 높아진 지역 생산성과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안일환, 2010: 287; 허재완, 2007: 91). 따라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는 업무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여성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의 지역별 구축·관리, 직업상담원·취업설계사 등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실무적 업무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여성가족부는 총괄 관리에 대한 기획과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적 가치가 확인되었으므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행보를 실천해야 한다.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

고 있는데, 제시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파일링, 고용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정책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가, 취업실적 관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보완(오은진 외, 2011) 등의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부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정보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정책과 센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새로일하기 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존재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여성의 일자리 마련에 있어 계약직이나 일용직보다 정규직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기업들과 친밀한 관계형성, 전략적 제휴에 더 집중해야 하며,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질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앞서 신설을 거론한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각 지역 고용센터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비용 지원 및 지도 점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와 병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업무 비효율과 함께 실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고용과 관련된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의 해소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고용센터의 업무 일체를 이관하거나 고용센터가 보조하는 형태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기 분석결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여성새로일하기 정책의 일선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립하고 업무처리에서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정책행위자와 관련되어 본 연구는 설정된 기간 동안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의 네트워크 상 활동에 관련된 정책행위자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책과 관련된 직·간접적 행위자들은 공시된 주체들 이외에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비의도

적으로 배제된 그들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지대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산출한 관계구조 지수가 실제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4년 동안 나타난 변수들의 추세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한 양상을 보인 변수들로 분석을 행하였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신뢰도 측면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우연히 실제와 부합되었을 가능성도 내재한다. 더불어 사회연결망분석은 관계구조에 대한 계량적 결과 도출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나 심층 작용 요소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즉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항상 우호적일 수 없으며 연계가 반드시 양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연계를 긍정적으로 전제하고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현실의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의 숙고를 통해 보다 개선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9). 2009년 고용백서. 과천: 고용노동부.
- (2011). 2011년 고용노동백서. 과천: 고용노동부.
- 구태희·이운철(2008). 글로벌 네트워크 중앙성이 호텔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국내 특급호텔 대상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2권 제1호. 141-162.
- 김경모(2005). 커뮤니케이션학의 방법론적 쟁점: 커뮤니케이션 연결망 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탐색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권 제2호. 162-207.
- 김경주(2001).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덕근(2006). 교육정책참여자들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2호. 81-101.
- 김성희·장로사(2010).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71-87.
- 김순양(2010).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 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4호. 177-210.
- 김예승·홍성우(2010).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분석: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9-49.
- 김옥일(2008).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용민(2010).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제고를 위한 맞춤형 취업효과 연구 -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79-109.
- 김용학(1995). 아동 가족 연구를 위한 최신통계기법: 사회연결망분석 기법. 한국아동학회 추계워크샵. 29-46.
- (2011). 사회연결망분석. 서울: 박영사.

- 김원중(2008).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정책 방향. 한국경제포럼. 제6권 제1호. 57-67.
- 김종숙·박수미·오은진·조선주(2008). 새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주환(2004).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2권 제1호. 133-163.
- 김지희·안문석(2002).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4호. 101-124.
- 김채규(2010).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공기업.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태홍·민무숙·오은진·이택면·김승연(20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역량 분석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혁주(2011).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중심으로. 행정복지연구. 제3권. 125-143.
- 남병탁(201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 지역경제연구. 제22권. 155~174.
- 노경란·최윤선(2013). DACUM법을 이용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설계사 직무분석. HRD연구. 제15권 제3호. 161-188.
- 민무숙·오은진·이시균(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용성(2004).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적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한강 및 낙동강 유역정책수립 및 입법화 과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3호. 99-128.
- 방민석(2002).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정책패러다임의 변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숙자(2007). 한국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3-7.
- 배용환(2001).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의 정부와 경제이익집단 관계: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2호. 19-39.
- 류지성(2009).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 송희준·송미원(2002).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네트워크자 선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4호, pp.359-384.
- 안이환(2007). 사회성 측정. 서울: 서현사.
- 안일환(2010). 한국의 재정.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3). 201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오은진·민무숙·김종숙·김혜원·김난주·이시균(20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현석·류혜현·김국균·최예슬·서동인(2011). 국가인적자원개발 경쟁력 지수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247-277.
- 유병권(2009). 도시계획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인원(2013). 기술적(descriptive) 네트워크 분석에서 통계적 네트워크 분석으로 - 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네트워크 방법론의 접목 가능성.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2호, 31-61.
- 이재무(2014).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3호, 209-284.
-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12).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서울: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최연철(2012). 유아교육연구자의 사회연결망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176-187.
- 최영출(2011).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15권 제2호, 49-78.
- 최홍석·홍성만(2004). 수자원 공급의 거버넌스 변화 분석 - 정책공동체에서 이슈네트워크로.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1호, 49-79.
- 허재완(2007). 지역 간 일자리 창출 특성 및 격차 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0권 제3호, 77-97.
- Anderson, James. E.(2011). Public Policy Making seventh edition. Boston,

- M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Atkinson, M., & Coleman, W.(1989). Strong States and Weak State : Sectoral Policy Network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47-67.
- Benson, J. K.(1982). A framework for policy analysis. In D. Roger & D. Whitten (Eds.), *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pp.137-176).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Kenis, p., & Schneider, V.(1991). Policy Networks and Policy Analysis. in B. Marin and R. Mayntz(Eds.), *Policy Network: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pp.25-62). Boulder, CO: Westview Press.
- Kettl, Donald. F.(2005). *The Global Public Management Revolution* second edition.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Kickert, W. J., Klijn, Erik-Hans, & Koppenjan, Joop F. M.(2005). Introduction: A Management Perspective on Policy Networks. In Kickert, W. J., Erik-Hans Klijn, & Joop F. M. Koppenjan(Eds.), *Managing Complex Networks*(pp.1-13). London: SAGE.
- Lindquist, E.(1992). Public Managers and Policy Communities: Learning to Meet New Challenges.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5(2). 127-159.
- Löblich, M., & Pfaff-Rüdiger, S.(2011). Network analysis: A qualitative approach to empirical studies on communication policy.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3(7), 630-647.
- Luzi, S., Mohamed, A. H., Sigrist, F., & E. Tauchnitz(2008). Water Policy Networks in Egypt and Ethiopia. *The Journal of Environment & Development*, 17(3). 238-268
- Marsh, D., & Rhodes, R. A.(1992). Policy networks in British Politics. In M. Bernd & M. Renate(Eds.),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pp.1-23). Oxford: Clarendon Press.
- Mills, M., & Saward, M.(1994). All very well in practice, but what about the theory. In P. Dunleavy & J. Stanyer(Eds.), *Contemporary Political Studies 1994 Volume One: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Held*

- at the University of Wales Swansea.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 Mitchell, C.(1969). Social network in urban situations: Analysi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central African town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eters, B. Guy.(1996).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 Lawrence, K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Rhodes, R. A.(1988). Beyond Westminster and Whitehall: The Sub-central Governments of Britain. London: Unwin Hyman.
- Smith, M. J.(1993). Pressure, power and policy: state autonomy and policy network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 Harvester Wheatsheaf.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Government Actors' Weight between Policy Outcomes in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Network

Jae-Moo Lee

This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its achievement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network portion of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ain authority in charge of women's policies. We employed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o extract all relevant data for each factor and performed further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nalyzed the changing trends from 2009 to 2012 for each contributing factor. We concluded that the policy network of the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is highly dense with a non-large network structure; furthermore, certain authorities have sufficient powers to intervene in almost all matters.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hold high status and significant power, playing a major role in advancing policies and mediating interested parties. Finally, an analysis of each changing factor suggests that the New Occupation Center for Women should give greater emphasis to maintaining its high status and mediating role rather than functioning within the network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chieve more.

Keywords ; New Occupation for Women Policy and Cent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